[지구하] 아찔한 첫만남

띵동 -

주문이 울린 곳으로 가보니 방금 나의 코 끝을 자극했던 은은한 화이트 머스크 향을 두른 여자가 앉아 있었다.

**주문하시겠어요?**

네!! 저희..

*쨍그랑!!*

…

….

항상 시끄러웠던 술집이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.  
근데, 왜 이렇게 밑이 축축하지...?

술냄새와 섞인 향을 맡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지가 흥건하게 젖어있었다.  
맥주 잔에 떨어지면서 내 바지에 엎어진 모양이다.

…. 죄송합니다!!!!!(화면흔들림)

고개를 들어보니 방금 맡은 그 향과 땀 냄새가 조금 섞인 포니테일 머리를 한 다부진 체형의 여자가 안절부절한 상태로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.

아 어쩌면 좋아… 괜찮으세요?

**아, 네 뭐…**

아니, 사실 매우 찝찝한 상태지만 여분 옷을 챙겨왔다.

1. **갈아입을 옷이 있어서 괜찮아요.**
2. **흔히 있는 일이라 괜찮아요.**

그래도.. 다치진 않으셨나요?!!

아.. 진짜 어떡해.,.. 제가 빨아서 다시 돌려드릴게요.

아니면 세탁비라도!!!(화면흔들림)

그녀는 취기가 조금 있는 지 매우 큰 목소리로 미안하다며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.  
하아, 자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데..

**일단 주변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좀 진정하고 자리에 돌아가봐요 진짜 괜찮으니까.**

그렇지만...

이 뒤로는 울먹거리는 그녀를 같이 술 마시던 사람들이 죄송하다며 데리고 자리로 돌아 갔고

술집에서는 언제 그랬냐는듯 다시 금방 사람들 말소리로 공간을 채워갔다.  
.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후... 갑자기 알바하다가 이게 무슨일이람

**사장님 저 옷 갈아입고 나서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요.**

*사장: 그래~*

-술집골목배경-

(갈아입고)쓰레기가 왜이리 많아? 청소하면 할 수록 끝이 없네

저기...

**네? 무슨일이세요?**

아까 그 여자다. 아까 맡았던 향은 여전하네. 근데 왜 갑자기 밖으로 나온 거지?

아깐 정말 죄송했어요! 정말 실수였어요. 이걸 어떻게 변상해야할지...

그녀는 아까 울었던 탓에 술이 조금 깬 것인지, 아까처럼 안절부절했던 모습과는 달리 좀 차분하고 진정된 목소리로 얘기를 이어나갔다.

그럼 그렇지... 괜찮다니까  
**됐어요. 어차피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하고, 제가 세탁해서 다시 입으면 돼요**.

아뇨. 이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책임지는게 맞아요. 세탁비로 퉁 치는 것보다는 여기, 제 연락처드릴게요!

-지구하의 번호가 적힌 메모지-

그녀는 자기 연락처를 조그마한 메모지에 적어서 줬다.

(조금 귀찮다는 듯)**저는 진짜 괜찮아요. 마저 마시러 가세요.**

왜 자꾸 괜찮다니까 귀찮게 구는지 모르겠네. 어차피 오늘 이후로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연락처도 그냥 버리던가 해야겠다. 그런데 지금 몇 시지? (핸드폰 잠금을 풀며)

(버릴 걸 예상했다는 듯이) 설마 연락처 드린 걸 버린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시죠? 안되겠네 핸드폰 이리 줘봐요.

난 안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인 지 힘이 생각보다 셌고,  
안간힘이 오가고 정신 차리니 이미 내 핸드폰은 그녀의 손에 있었다.

(자기 연락처를 남기고있다)

**저기 지금 뭐하시는...**

저는 저기가 아니고 지구하에요!  
…

제 연락처 남겨드렸어요. 시간되실 때 연락주세요.  
전 빚지고는 못사는 성격이거든요. 그럼…, 기다릴게요..!

당황했지만 다시 가져가기엔 좀 지쳤다. 뭐야 저 여자는?

그녀는 자기 할 말만 다한 채로 다시 자리로 갔고, 나는 벙찐 채로 제대로 하고있는 지도 모르는

청소를 마저 하고 알바를 하러 다시 들어갔다.

[한서령] 아찔한 첫만남

**오늘은 많이 안 바쁘네… 앗, 마법의 문장....**

딸랑 - 생각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.

**.... 어서오세요! 몇 분이세요?**

방금 스쳐 지나간 향이다.

근데 이 사람은...?

2명이요

허구한 날 매일 남자가 바뀌어서 오는 손님이다.

맨날 내가 바쁠 때 와서 가까이서 볼 일이 없었는데, 남자가 많은게 이해갈 정도로 고급지고 아름답게 생겼다.

**오늘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랑 오셨네.**

............어? 뭐라고? (어이없는 표정)

아차, 생각으로 말한다는 게.

오늘따라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.

야 너 방금 뭐라고 했냐고.

**아,아니.. 이렇게 이쁘신 분이 왜 오늘은..! 아니 이게 아니라.**

진짜 대참사다. 쥐구멍에 숨고 싶다..

하..한 번만 봐줄게.

그녀는 이쁘다는 말에 화가 조금 풀린 것 같다.

생각보다 칭찬에 약한 것 같다.   
.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**친구 1: 빨리 가서 얘기하고 와 ㅋㅋ**

야 그걸 어떻게 해? (조금 취한 표정).

주문을 받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다. 고급지면서도 진하지 않은 우아한 연한 장미 향이 나는 것을 보니 아까 그 여자인 것 같다.

후으.....야 알바.

**예..예?**

나랑 사귈래?

**1. 어.. 잘못들었는데 뭐라고요?  
2. 네?**

에? 내가 방금 뭐라고 했더라? (진짜 까먹었다는 듯한 표정으로)

..아아~ 기억났어 나랑 사귀자고! 나 너 마음에 들었어

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녀는 나에게 술냄새를 풍기면서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.

**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술 많이 드신 거 같은데 그냥 쉬시는게...**

아니? 나 멀쩡한데? (누가봐도 얼굴 빨갛다.) 그래서 사귈 거야 말 거야?

그녀는 생각보다 더 막무가내였다. 아까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해서 강하게 거절할 수는 없었다.

**친구1: 야 너 까인거같은데? 그냥 다시 와서 앉아~(웃음)**

아니거든? 슬슬 다 와가는데 재촉은...!

야 너 시간 없어 어떡할거야? (주인공에게 다가감)

그녀는 어째서인지 나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다.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올수록 아까 맡던 향은 서서히 짙어져 갔다.

**저는... 아직 누구랑 사귈 준비가 안되어있는거같아요. 게다가 지금 너무 갑작스럽고 좀 당황스러워요. 죄송합니다.**

너.. 너 진짜 후회한다? 나 같이 예쁜 사람이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다는데..!

예쁜건 둘째치고 너무 막무가내다.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래도 되는건가?

**손님, 자리로 돌아가주세요. (정색)**

그녀는 내 얼굴을 흘깃 보곤 조용하게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.

**(다른 손님 무리) 저기요! 여기...**

**네!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**

여전히 다시 나의 정신 없는 알바라이프로 돌아갔다.

**사장: (주인공)아 지금 술집도 적적한 김에 지금 남아 있는 테이블에 안주 서비스라고 하면서 주고와.**

**네 알겠습니다~**

알바도 얼추 시간도 많이 지났다.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저 사람(한서령)은 아직도 있지? 게다가 술병도 아까보다 잔뜩 늘어났잖아?! 어째 불길하다.

**친구1: 야 마지막으로 다시 해볼래? 저 알바생이 너 걱정되는 거 같이 보이는데?**(근데 사실 주인공은 사실 별 관심없음 그저 늘어난 술병에 감탄만 할 뿐임)

하ㅏㅏ아? 이버네야 말로오 저 남자…번호 꼭 얻어갈그야ㅑ(딸꾹)

야!! 알바!!

**아이고 이 진상아..(혼잣말)**

역시 내 불안은 틀리지가 않는다. 슬슬 짜증난다. 이번에도 그러면 강하게 거절 해야겠다.

**네 손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**나는 최대한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.

필요한 거 있지 이자시가ㅏㅏㅏㅏㅏ 너 번호!! 버노 당장 찍어!!! 마지막 기회야!!

**(단호하게)싫어요.**

뭐..뭐라고?

**(짜증난다는듯이) 싫다고요.**

표정이 일그러져서 표정관리가 안될 쯔음에 그녀의 친구가 급하게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.  
그녀가 머문 자리에는 연한 장미 향만 맴돌고 있었을 뿐이다.

(인정 할 수 없다는 말투로)나 여기 다시 올게에~!! **(여기서부터 남근쟝 죽기 3분전이라 시나리오만)**

[유가현] 아찔한 첫만남

시끌벅적한 술집.  
주인공은 간만에 일거리가 없어서 가게 오픈 후 현재까지의 계산이 맞는 지 확인 중.  
향이 닿는 곳에서는 소란스럽게 옆 테이블과 이야기 중이였음.  
주인공은 헌팅이겠거니~ 하고 가만히 있었지만, 주변 손님들에게 시끄럽다며 신고가 들어와 주인공이 한마디하러 출격!

가서 보니 상큼한 복숭아 향이 나는 귀엽고 작은 여자아이(유가현)가 어쩔 줄 몰라하며 친구를 말리고있음.  
알고 보니 같이 술마시러온 친구가 술에 취해 옆 테이블이 쳐다봣다는 이유로 싸움을 건 것.

어쩌다보니 유가현도 말리다가 휘말리게 되었음.  
주인공은 귀찮지만 사장에게 가뜩이나 쿠사리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(삼일절에 사장이 왜 이런 것인지 풀림) 이런 이유로는 욕을 먹기 싫어 재밌게 술먹으러와서 이러고싶냐, 지금 두 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죄냐 등등 여러 이유를 얼버무리며 싸움을 모면함.  
> 여기서 선택지

이렇게 한바탕이 지난 후, 주인공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담배를 피러나감  
유가현은 이를 보고 친구에게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주인공을 따라감.  
.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-뒷골목-

(담배피는중)  
유가현: 콜록…저기요..!

담배에 담자도 모르는 지, 한 손으로는 손을 휘젓고 다른 한손으로는 입에 갖다대어 기침을 하며 나에게 다가온다.

주인공은 이를 보고 한숨을 쉬며 담배를 끄고 왜 부르냐 물어본다.  
(이유는 왜냐면 알바하다가 손님와서 담배끄는 빡침이랑 비슷함)  
유가현은 숨을 고르더니 냅다 고백갈기기 시전

주인공은 귀여운 얼굴에 약 1초 고민하지만 이내 거절.  
이유는 처음 본 사람이고 방금까지 싸움에 휘말렷던 사람이기 때문!

유가현도 취했는 지, 끈질긴 호감표시에 주인공은 그럼 아는 지인으로부터 시작하자며 일단 번호 킵.  
유가현은 싱글싱글 웃으며 고맙다고 자리를 뜸.  
그녀가 뜬 자리에는 은은한 복숭아향이 내 코를 찔렀다.

-끝-